



강남으로 돌아가는 제비들 5일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마을 전깃줄 위에서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마친 제비들이 월동지로 이동중 휴식을 취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세계 9개국 셰프들 제주산 재료로 요리 대결

제주서 국제요리경연대회

제주에서 세계 9개국 요리전문가들이 모여 제주산 식재료로 요리 실력을 겨루는 대회가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13일 제주한라대학교에서 '제10회 제주향토음식품평회·세계조리사연맹(WACS) 국제요리경연대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한국조리사협회 제주도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스위스 등 세계 9개국 국내외 요리전문가와 조리 전공 학생 등 240여명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제주 흑돼지 등 제주산 식재료를 활용해 제주의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를 선보인다.

제주도는 이번 대회를 제주 전통 식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대회를 계기로 제주를 글로벌 조리 인재 양성 거점으로 키운다는 목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추자해상풍력 이익공유 개편… “주민 배당”으로

위 지사, 4일 제주도의회 정례회 답변서 개편 시사
“이익공유금 제주도에 귀속되는 현행 구조 부적절”
“추자 주민에게 투자 참여 가장 큰 우선권 부여”

제주도가 추자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이익 공유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추자해상풍력단지는 개발사업자가 약정을 통해 수익 일부를 제주도에 납부하면 이 재원을 도내 에너지 취약 계층 지원에 투입하는 구조였는데, 위성근 제주지사는 이를 개편해 한림해상풍력단지처럼 투자한 주민들에게 개발 이익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위 지사는 추자해상풍력발전 공모 유찰 원인을 묻는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의 질의에 “전력 계통 연계가 제주도 본섬으로 설계된 것과

이익공유금으로 1300억원을 납부하도록 한 점 등 2가지가 문제였다고 본다”면서 이런 구상을 밝혔다. 추자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은 18조원을 투자해 추자도 서쪽 10~30km 해상과 동쪽 13~50km 해상에 2.37GW 규모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발전 용량은 세계 최대 규모로 원전 2기와 맞먹는다.

당초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인 에퀴노르가 사업 참여 의사를 보였지만 공모가 시작되자 응모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공모에 뛰어난 한 국중부발전은 중도에 포기했다. 업계에서는 매년 최소 1300억원 규모의 도민 이익 공유금 납부와 추자해상풍력 전력 계통을 제주로 연결해야 한다는 조건에 부담을 느껴 이들

기업이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 지사는 당선인 시절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자해상풍력발전단지 전력을 육지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이런 기조에 발맞춰 추자해상풍력과 같은 먼바다 풍력 시설의 생산 전력은 전부 육지로 보내고, 근해 풍력 시설의 생산 전력은 제주 본섬에 보내기로 송전 계획을 변경했다.

또다른 유찰 원인으로 지목된 이익공유금에 대해선 위 지사는 그동안 별다른 언급을 안 해왔지만, 이날 도정질문에서 처음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며 폐지를 시사했다.

그는 “한림해상풍력처럼 도민 공모를 통해 도민 누구나 이 개발사업(추자해상풍력발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추자도 주민들이(투자 참여에) 가장 큰 우선권을 갖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추자 주민을 제외한) 제주도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림해상풍력단지는 한림읍 3개 마을이 총 사업비의 약 4.7%인 300억원을 투자하고 개발 수익을 배당받는 주민 참여형 모델로 추진됐다.

또 위 지사는 추자해상풍력 전력을 육지로 보내려면 전라남도와의 계통 연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남과도 이익을 공유해 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위 지사의 이런 발언은 전남이 제주와의 해상 경계 문제로 계통 연결에 반발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전남과의 개발 수익 공유가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위 지사는 “현행 조례는 해상풍력개발사업자가(수익의) 17.5%를 공유화금으로 내놓게 되어 있는데, 도민적 논의를 통해 개선하겠다”며 “(사업자가 낸 기금)이 제주도로 귀속되는 구조로는 추자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올해 제주 여름 역대 세 번째로 더웠다

평균 기온 26.1℃… 폭염 14일·열대야는 46.5일
기상청 “복합 극한 고온 뚜렷”… 강수일수 적어

올해 제주의 여름은 역대 세 번째로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제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26년 여름철(6~8월) 제주도 기후특성’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은 26.1℃로 집계됐다. 이는 평년(24.5℃)보다 1.6℃ 오른 수치로, 역대 가장 더웠던 2025년과 20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최근 3년(2024~2026년)이 역대 1~3위에 포함됐고, 2021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 이상 높게 나타나 최근 들어 여름철 기온 상승 경향이 심화했음을 보여준다고 기상청은 설명하면서 “올여름은 폭염, 열대야가 밤낮으로 지속되는 복합 극한고온현상이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주는 7월 6일부터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다가 7월 10일부터 8월 8일까지 34일 동안 일평균기온이 모두 평년보다

높았다. 또 이 기간 제주 4개 지점별로 월별 일최저·최고기온 극값(1~5위)을 경신한 일이 11일이나 됐다. 8월 하순에 다시 평년보다 3℃ 이상 높은 고온이 시작됐고 이로 인해 8월 하순 평균기온(29.2℃)이 역대 1위를 기록했다.

폭염일수는 14일로 평년(3.8일)의 약 3.7배에 달했다. 2024년(16.5일)과 2025년(14.5일)에 이어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지점별로는 제주(28일), 서귀포(16일), 성산(7일), 고산(5일) 순이었다. 지점별 최대 폭염지속일수는 서귀포가 14일(7월 25일~8월 7일)로 역대 1위, 제주가 8일(7월 27일~8월 3

일)로 역대 5위를 각각 세웠다.

열대야일수는 46.5일로 평년(23.8일)의 약 2배에 달했다. 2025년(49일)과 2024년(48일)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지점별 열대야일수는 제주(53일), 서귀포(51일), 고산(44일), 성산(38일) 순이었다. 최대 열대야지속일수는 제주가 35일(7월 7일~8월 10일)로 역대 4위, 성산은 15일(7월 11~25일)로 역대 2위를 각각 기록했다.

올해 제주도 장마철은 역대 세 번째로 늦은 6월 30일 시작해 평년과 비슷한 7월 19일 종료됐다. 장마 기간은 20일로 역대 여섯 번째로 짧았다. 장마철 강수량은 117.2mm로 평년 대비 33.2% 수준에 그쳐 역대 4번째로 적었다. 강수일수도 6.8일로 역대 2번째로 적었다.

서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2026

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3차 모집

지원대상 | 만 40세~만 64세 이하
도내 중소기업 6개월 이상 정규직 근로자(보건업 신청 가능)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382만원 미만인 근로자

접수기간 | 2026. 9. 1.(화) ~ 9. 30.(수)

지원내용 | 기업, 근로자, 제주도가 함께 적립하여 근로자가 근속 및 계약유지 시 **2,040만원 + 이자** 를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근로자 적립금 총 600만원	5년간 매월 10만원 적립
중소기업	기업 부담금 총 720만원	5년간 매월 12만원 적립
제주도	도 지원금 총 720만원	5년간 매월 12만원 적립

5년 적립시
사업참여근로자에게
2,040만원 + 이자
지급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064-710-379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064-754-5159, 5164